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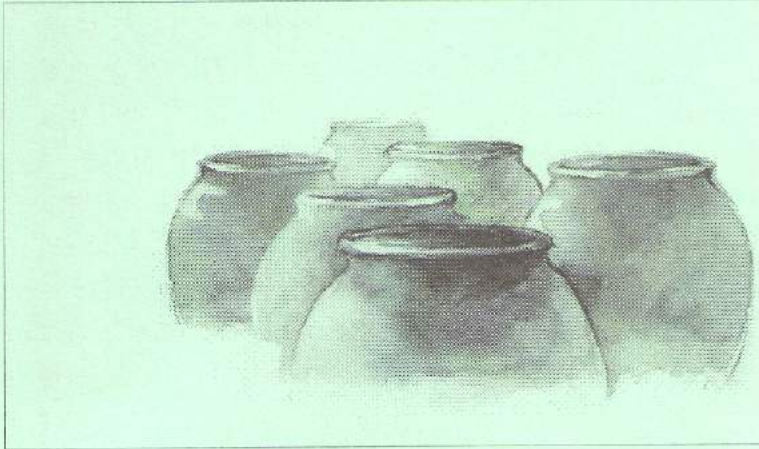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2주일

제36권 8호(다해) 2016년 1월17일

[묵상]



" 술이 없다."

난처한 일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리신 분이 성모님이시다.

한참 흥겨운 잔치집에 술이 떨어진 사실을 성모께서

아들 예수께 이 사실을 은근히 알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도

이 청을 물리치지 않고 들어주시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안에는 크고 작은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성모님께 알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잘 따르도록 하자.

예수님께서서는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간구를

결코 저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언팅회 (장례식 연락처) : (310) 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들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에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제주) 성소후원회(첫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제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제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제주 - ● 요셉회 4제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입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형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2-3. 조선교구의 설정

1860년대 초의 교회는 거듭된 박해에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고종의 후견인으로 정권을 장악한 흥선 대원군 이하응은 천주교가 성행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다. 대원군은 정권을 장악한 직후 왕실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국가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자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는 사상을 정비하여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이에 그는 지방 유림들의 본거지인 서원을 철폐하기에 앞서, 이단으로 지목되던 천주교부터 척결하고자 하였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순결성을 먼저 과시하면서, 사족(士族)들을 위압하려 한 듯하다.

대원군은 1866년부터 1874년 그가 하야할 때까지 천주교를 탄압하였다. 대원군 집권기에 천주교 박해가 심했던 기간은 1866년 이후 3년 동안이었다. 이 박해 과정에서 조선에서 선교하던 12명의 프랑스인 가운데 베르뇌(Berneux, 張敬一, 1814~1866년) 주교, 다블뤼(Daveluy, 安, 1818~1866년) 주교를 비롯하여 아홉 명의 선교사가 순교하였다. 이에 1866년 프랑스 해군은 병인양요(丙寅洋擾)를 도발하여 강화도를 침략하고 약탈을 감행하였다.

또한 1868년에는 흥선 대원군의 생부(生父)인 남연군(南延君) 묘를 파묘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에는 박해를 피해서 중국에 피신해 있던 페롱(Feron, 1827~1903년) 신부가 개입되었다. 이 도굴 미수 사건의 여파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은 더욱 혹독하게 전개되어, 충청도 해미에서는 많은 신자를 생매장 학살하기까지 하였다.

1866년에 시작되어 3년여에 걸쳐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 박해 과정에서 남종삼(南鍾三, 1817~1866년), 홍봉주(洪鳳周, ?~1866년) 등 많은 신자가 신앙을 증언하고자 순교하였다. 또 제너럴 셔먼 호(號) 사건을 빌미로 삼아 1871년 미국 해병대가 강화도를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신미양요(辛未洋擾)로 외세와 결탁된 것으로 간주되던 천주교는 또다시 탄압을 받았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11	182	56
봉헌	222	270	255
성체	333	301	292
파견	444	240	238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 베드로, 변석환 & 박정례, 김이گی요셉 & 김순희헬레나, 최은순 막달레나 & 호베드로 & 장안나
	(생)
주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현시영 요셉,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 변혜정 올리안나, 이사범 로벨도, 이종수 마틴, Robert Polk, 송예자 루시아, 김순희 아가페, 김석남 아네스, 김혁기요한 & 채오옥 마리아, 김복순 세실리아, 양기녀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생) 정동호 하상 바오로, 황윤재 베드로 가정, 유명련 마리아, 김종문 아놀드 & 김진희 골롬바가정, 유은영 아네스, 박민아 로셀리나 & 최석원 안드레아 가정, 토서 3번가정, 권오상바오로 & 세실리아 가정, 한태동 요한 & 윤인숙 마리안나, 주태정 라파엘 & 명화 라파엘라, 이문종 바오로 & 난숙 마리나가정, 김용스테파노 & 문주 엘리사벳, 강상훈 라파엘 & 최수 오틸리아가정, 김병학 대건 안드레아 & 김숙희 유소사 세실리아 가정, 서성용 베드로 & 용숙 에스텔 가정, 이용운,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Isaiah) 62,1-5

화답송 ㉠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의 기적을 전하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나날이 선포하여라, 그분의 구원을. 전하여라, 겨레들에게 그분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에게 그분의 기적을.㉠
○주님께 드러라, 못 민족의 가문들아.
주님께 드러라,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드러라, 그 이름의 영광을.㉠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세상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겨레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임금이시다. 그분은 민족들을 올바르게 심판하신다.”㉠

제 2독서 코린토1서(1Corinthians)12,4-11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하느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네.㉠

복음 요한 (John) 2,1-11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기적을 바라십니까?"

지금도 혼인은 민족이나 나라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경사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혼인은 하느님의 자녀에 대한 축복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며칠씩 함께 머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까닭에 혼인은 성경 안에서 종말에 있을 하느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전해주는 ‘카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표징(다른 복음서에는 기적이라 표현)입니다. 물을 질 좋은 포도주로 바꾸신 카나에서의 첫째 표징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합니다.(2코린 5,17 참조)

정결레에 쓰이던 독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나타냅니다. 구약을 완성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말하는 셈입니다.

복음서의 기적이나 표징들은 모두 예수님의 신원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표징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분이심을, 그분이 바로 구약의 약속을 완성해가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요한 2,11)

예수님의 표징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렇기에 표징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항상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줍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제자들로부터, 니코데모, 사마리아 여인, 왕실 관리의 아들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찾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그 기적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많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도 믿음에 의지하여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나, 희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통해 위로 받는 것도, 믿음을 통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우리 눈에 쉽게 보이지는 않지만 기적일 것입니다. 큰돈을 벌거나 자신의 노력과 관련 없이 큰 성공을 이루거나, 다른 이들은 생각지 않은 채 나만의 유익을 위해 청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세속적인 잣대가 아닌 복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머물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시는 주님의 기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이번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박희자 마리아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정인욱 아우스딩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PV 1,4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신덕레 테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김낙기 바오로	김금자 테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도동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성탄 후 4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주님 봉헌 축일' (2월2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 전통적으로 1년 동안 전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2개)
 - 신청 : 1월 24일(주일) 까지 성물부 또는 사무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2월2일(화)저녁7시30분
- ◆ 제의 수요일에 사용할 성지 회수
오는 2월10일은 사순시기가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에는 제를 머리에 얹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때 쓰이는 제는 지난해 나눠드린 성지를 태워서 사용합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성지를 1월31일(주일)까지 성당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 요셉회 신년모임.
 - 일시 : 오늘 주일, 17일미사후
 - 장소 : 강당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310)780-2789
- ◆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 한국학교 2 학기 등록
 - * 1월 31일까지 등록시 20% 할인혜택 (SAT 반 제외)
 - SAT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2월 7일부터)
대상 : 8 학년 이상 (수강료 \$ 200.)

- 1 학기말 시험 - 1월 24일 2교시
성적 우수자 시상식 - 1월 31일 학생미사 중
- 학부모 간담회
 - * 주제 : 학교와의 소통 그리고 건의사항
 - * 일시 : 1월 31일 일요일 오후 2시~3시
 - * 장소 : 강당
- 문의 사항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또는 103skccks@gmail.com
- ◆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퇴정
 - 일시: 3월 4일 (금) ~ 3월 6일 (일)
 - 장소: St Anne Retreat Center
30480 Fredalba Rd Running Springs, CA 92382
 - 참가비: \$60 (1/24~2/21 등록시), 이후 \$85
 - 준비물: 성경, 묵주, 슬리펄백, 두꺼운 재킷, 세면도구, 필기노트
 - 문의: 김낙기 바오로 주일학교장 ☎(310) 709-3343
- ◆ 김정희 아그네스 자매님 (91세, 박의혜 세실리아 자매의 모친, PV1반)께서 1월 14일 노환으로 선종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도: 1월 17일 (주일) 11시 미사(친교점심)후
 - 고별식 및 장례미사: 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
(화요일 저녁미사 없음)
- ◆ 주일학교 / 한국학교 휴강
 - 오늘 주일(17일)은 마틴루터 킹 주니어 데이 연휴로 수업이 없습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 17일 *토동1반 : 카레라이스 (\$3)
* 주일학교 : 수업 없음
 - 1월 24일 * 토서1,3반 : 짜장 밥 (\$3)
* 주일학교 : 피자 (10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교무금						성전헌금	성전헌금					
	김기정	김상근	김여순	김옥찬	김 욱	김원호		김기정	김윤진	김재성	김준호	노혜숙	박음전
	김윤진	김재성	김준호	김형순	노혜숙	박경자		석순영	성낙호	안재만	원건희	이경수	이남현
	박음전	배태임	변복순	식순영	성낙호	안재만		이미에	이우성	이일길	임 순	정지숙	정훈모
	원건희	육근주	이경수	이남현	이미에	이우성		주대중	최미열	한창주	홍광선		
	이원형	이일길	이태옥	임 순	정병훈	정지숙							
	정훈모	주대중	최미열	최의수	한창주	홍광선							
	홍인표												
합계:\$3,070							합계 : \$1,720						
주일미사 현금 : \$2,541							감사헌금 : \$20(정운조)						

◆ 위안부문제 서명운동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면서 과거 일본이 저질렀던 위안부 만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역사교과서를 개편하는 내용(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 현재 그 개편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2월 말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 메일 주소는 HSSframework@cde.ca.gov 이고 이 주소로 들어가서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그 다음에 교육부 사이트로 직접 들어가서 않고 의견 수렴에 참여하실 한인들을 위해 구축한 사이트 주소는 www.comfortwomenpetition.org입니다. 이 사이트로 들어가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클릭하면 아래 첨부 내용과 함께 교육부 메일로 전송됩니다.

● 세 번째 방법은 서면으로 작성한 것을 본당에서 모아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인 Young Kim 의원에게 전달하면 교육부에 제출해 주기로 하겠다고 합니다.

◆ 꾸르실로 3박4일 주말

남가주 꾸르실로 영어 남성 제 40 차 주말과 영어 여성 제 40 차 주말이 1월과 2월 에 Assisi 피정의 집에서 있겠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본당 올트레아 간사님이나 이 E- Mail로 연락을 주십시오: kaccmsc@gmail.com.

- 일시: 영어 남성 제 40차: 1월 21일 (목)-1월 24일 (주일)
영어 여성 제 40차: 2월 11일 (목)-2월 14일(주일)
- 장소: 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 주소: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 91340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LA 골롬바의 집에서 인보 성체수도회 수도자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지내실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장소 : 248 S. Mariposa Av. L.A. 90004
- 담당: 공 테레사 수녀
☎213-389-7760 / 213-785-1147

◆이나시오 영신수련에 따른 침묵피정(4박5일)

- 일시 : 2016년 2월 10일(수)-14일 (주일)
- 장소 : Prince of Peace Abbey
650 Benet Hill Road
Oceanside, CA 92058
- 지도신부 : 이근상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50(독방숙식제공)
- 문의 : 정도로테아 (323)937-2083, 818-321-9505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번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오신제 베르텔다 1/12(화) 오후 4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한창주 요아킴 1/09(토) 오후 6시, 강당
	3	윤미에 안나 560-7120	윤미에 안나 1/15(금) 오후 7시30분, 강당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 크리스티나 490-9662	임혜은 도로테아 1/16(토) 오후 6시
	2	윤정옥 실비아 909-557-7490	정남형 알베르토 1/09(토) 오후 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1/16(토) 오전 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박정희 아네스 1/17(주일) 오후 1시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1/12(화) 오전 11시 30분
	3	김유미 사비나 738-5305	이재용 안드레아 994-6782 1/23(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정명옥 율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병태 요셉 1/18(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1/16(토) 오후 7시 성당
P. V.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도 384-3289	구역미사 남성철 베네딕도 1/22(금) 오후 7시, 377-6659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구역미사 남성철 베네딕도 1/22(금) 오후 7시, 377-6659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구역미사 남성철 베네딕도 1/22(금) 오후 7시, 377-6659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구역미사 남성철 베네딕도 1/22(금) 오후 7시, 377-6659

이번 주 단체 모임

회장단 회의	19일 오후 8시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 회의	1시
-------	----

124위 시복특집<37> 김 사건 안드레아 (1794~1839년)

충청도 서산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난 김사건(金思健) 안드레아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교리를 배웠다. 1815년에 유배형을 받은 김장귀(타대오)는 그의 아버지였고, 그 해 강원도 원주에서 옥사한 김강이(시몬)는 그의 큰아버지였다.

본래 안드레아의 집안은 부유하였으나, 부모가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재산을 버리고 이곳 저곳으로 이주해 다닌 탓에 가난하게 되었다. 그의 가족이 피신해 다닌 곳은 전라도 고산, 경상도 진보, 강원도 울진 등지였다. 그러다가 안드레아는 1815년의 을해박해 때 아버지와 함께 체포되었으나, 마음이 약해져 석방되고 말았다. 이후 그는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하면서 가끔 당시의 일을 후회하곤 하였다. 아버지가 유배를 간 뒤 안드레아는 경상도로 이주하였다. 이곳에서 그는 기도와 전교, 성서 읽기에 많은 시간을 바치면서 교리를 실천하는 데 열중하였다. 또 신자 가정을 찾아 교회 서적과 성물을 전해 주거나 교리를 가르쳐 주었고, 죽을 고비에 있는 비신자 자녀들에게는 대세를 주었다. 그러면서 안드레아는 다시 순교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1827년 정해박해가 일어나자, 안드레아는 체포될 것으로 짐작하고 천주의 섭리를 잘 따르기 위해 많은 기도를 드렸다. 실제로 얼마 안되어 포졸들이 그를 체포하러 왔고, 그는 이내 상주로 끌려가 문초를 받게 되었다. 이때 그는 '교우들을 밀고하라'는 관장의 명을 거부하고, 오히려 천주교의 주요 교리와 십계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러자 관장은 화가 나서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다. 그는 다리뼈가 허영게 드러났지만, 마음이 약해지기는커녕 기쁜 마음으로 이를 참아냈다. 며칠 후 김사건 안드레아는 경상도의 수부인 대구로 압송되어 다시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며칠 후 그는 전주로 이송되어 포졸들이 교우들로부터 빼앗은 성물에 대해 답변을 한 다음 다시 대구로 끌려오게 되었다.

대구 옥에는 형벌을 이겨낸 많은 교우들이 안드레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들과 함께 이후 12년 동안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다시 한 번 배교 여부를 묻는 문초가 있었는데, 이때 임금에게 올려진 사형 선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김사건은 천주를 공경하여 받들었고, '그 묘미를 갚아 깨달아 비록 죽을지라도 여한이 없다'고 하였으니, 법에 따라 처단하려고 합니다." 당시까지 대구 옥에 갇혀 있던 신자는 김사건 안드레아와 박사의(안드레아), 이재행(안드레아) 등이었다. 그들은 임금이 사형 집행을 윤허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들이 쓰던 물건과 옷을 다른 죄수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839년 5월 26일(음력 4월 14일), 안드레아는 마침내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끌려나가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45세였다. 그때 이들을 바라보는 죄수와 옥졸들은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하였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범 때문이었다. 이후 포졸들은 그들의 시신을 수습한 뒤 예를 다하여 장사를 지내 주었으며, 신자들은 오랫동안 그들을 특별히 공경하였다.

◆서울대교구 홍보국 역임

마음의 수분크림

나이 탓일까요? 언제부터인가 찬바람이 불면 가려운 곳이 생깁니다. 넓적다리나 옆구리를 남몰래 긁는 일이 잦습니다. 찬바람을 쐬면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손도 거칠어집니다. 미사 시간 성가를 부를 때 목소리가 갈라져 쉼소리울 때도 있습니다. 몸이 건조해져서 그럴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겨울에는 자주 물을 마시고 거칠어진 피부에는 '수분크림' 같은 보습 화장품을 발라주라고 합니다. 요즘은 화장하는 남자도 많다고 하지만 아직 보습 화장품을 챙겨 바르는 습관이 안 돼 있어 겨울철 내 피부는 여전히 거칠거칠합니다.

문득 현대인은 피부뿐 아니라 마음의 보습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쟁에 지치고, 차가운 현실에 메말라 버린 가슴들, 각박한 세상 살아내면서 말로는 다 못할 상처로 거칠어진 가슴들이 어디 하나, 돌이겠습니까. 이렇게 거칠어진 가슴에 온기 있는 새살이 돋아나려면 상처를 진정시켜줄 영혼의 보습제를 먼저 처방해야 합니다. 또 불안과 불신으로 짙게 갈라진 마음들이 다시 합쳐 서로에게 힘이 되는 비옥한 마음이 되려면 '마른 눈에 비' 같은 수분보충이 필요합니다. 자주 마음이 허전해지고 헛헛해지는 인생의 가을쯤을 지날 때면 마음의 보습은 더욱 절실해집니다.

제 생각엔 마음의 보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크림을 발라주는 정도의 작은 노력 말입니다. 예를 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상냥한 인사 같은 것이 아닐까요? 먼저 베푼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고 덧난 상처를 아물게 할 명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당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가끔씩 혼자인 것 같고 신앙생활이 건조하게 느껴질 때 작은 변화와 실천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다시 윤기 있게 바꿀 수 있습니다. 미사 시간에 먼저 와서 하느님께 인사하기, 성가는 목소리를 좀 더 높이고, 기쁜 얼굴로 평화의 인사 나누기, 화살기도 한번 더하기 등등.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저는 마음의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까칠하고 못난 마음이 야기 피부처럼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 내 마음을 내보일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 하느님께서 제 마음을 어루만지실 때 뽕송뽕송한 느낌에 기분이 좋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탁은수 베드로 / 부산MBC 보도국 부장

세리와 바리사이의 기도

어느 날 인적이 뜸한 시각,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앞서 올라간 사람은 바리사이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열심한 사람들 무리에 속하면서 율법을 잘 지켰기에 모든 이들이 훌륭한 사람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지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모든 이들이 가까이하지 않으려는 부정부패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리사이는 무엇이라 기도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8,9-12

당시에 세리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면서 사람들이 모두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는 자신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뒷 쪽 기둥 아래 간신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손가락질 당할까 봐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여 세리는 기도도 마음껏 바치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하느님께 고개를 들어 기도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세리는 하느님께 어떻게 기도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8,13

예수님 시대에 세리들은 자신이 저지른 부정과 죄 때문에 사회에서 배척받고 있었습니다. 세리들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고 과중한 세금을 징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같은 민족의 피땀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뿐 아니라 세리의 가족들까지도 미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의롭게 되어 돌아갔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18,14

세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느님은 죄를 뉘우치는 사람들을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어떤 죄라도 뉘우치고 통회하면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느님 마음에 든 사람은 교만한 바리사이가 아니라, 죄인이라 생각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사이의 가장 큰 잘못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하느님은 사랑하십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는 곳곳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루카 18,11)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가 아니라 이 ()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질 것이다.”

(루카 18,14)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성인말씀]

그 무엇에도 너 흔들리지 말며, 그 무엇에도 너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하느님만이 변치 않으신다. 인내는 모든 것을 얻는다.
하느님을 가진 자는 부족함이 없으니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 예수의 성녀 데레사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써니사이드 장의사
 www.sunnysidecremation.com FDR #2224
 이민 1세로 열심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며 살아 오신 분들은 품격있는 서비스로 예우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세와 다리역할을하며 영어와 한국어로 새로운 장례문화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린 **"마이스토리"**를 100부 무료로 제공합니다.
 24시간 LA: 213-500-8434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시문*마리아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Bl. #1110 LA(에퀴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 H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워(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O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	--	--

서박사 수학 과외지도
 K-12, SAT ACT 책임지도
 서울대, 아이오와 대학원, 교직경력
 ☎310-627-7204 서혜정 마르타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키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State 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